

2026
03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신명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시편 18편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힘든 고비를 넘길 때 “죽을 뻔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다윗은 실제로 창칼을 든 살벌한 병사들의 끈질긴 추격을 10년 가까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숨소리 한 번 잘못 내면 실제로 바로 죽을 수 있는, 언제나 사방을 경계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하루하루 10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폭포의 낙차가 심할수록 그 힘이 크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찬란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인생에서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나온 사람은 벌써 그 찬양의 파워, 간증의 깊이가 다릅니다.

시편 18편의 시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만 듣는 것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힘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나와 확실한 상관이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힘을 나를 위해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목상하면 할수록 나는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고 가슴 든든합니다. 그 큰 힘이 나를 지켜 주시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시편 18편을 꼭 읽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시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않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기력함을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미국인 중 가장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찰리 스미스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는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이었지만 감사합니다. 130여 년간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아는 찰리 스미스의 인생은 고통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노예로 미국에 팔려 와 미국 전역을 끌려다녔고, 병들고 굶주려 죽을뻔한 적만 20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감사의 고백 기도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찰리 스미스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형상 조건으로 보면 그는 결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기에 인생 황혼에 그런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찰리 스미스의 인생처럼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신명기] 농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2026.
03

SAEROUN

주일	월	화	수
1 삼일절	2 대체휴일	3	4
8	9	10	11
새가족 132기 교육 1주차		3/10-13 공동체 개강예배	
15	16	17	18
세례식			
22	23	24	25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29 수난주일	30	31	1
		3/31-4/4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QT

목	금	토
5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지역 모닝글로리 동원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별빛교사 기도회 신앙순장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아가학교 개강 에이비인도자 스쿨 개강
12	13	14
	금요찬양집회	순장 훈련 개강
19	20	21
	3/20-22 청년1부 봄 수련회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26	27	28
구도자 커브 개강	3/27-29 청년2부 봄 수련회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2	3	4

2 FEB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4 AP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6.
03

1	주일	베드로 vs 요한	요 21:18-23
2	월	나에게 말기신 길	롬 14:1-10
3	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	신 28:36-46
4	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 28:58-68
5	목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신 29:1-9
6	금	언약 앞에 선 모든 사람	신 29:10-21
7	토	감추신 뜻과 드러난 말씀	신 29:22-29
8	주일	예수님 vs 세례요한	요 3:22-30
9	월	자기를 비워 높아지신 이름	빌 2:5-11
10	화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	신 30:1-10
11	수	오늘, 생명을 택하라	신 30:11-20
12	목	두려워 말라, 여호와가 앞서 가신다	신 31:1-8
13	금	율법을 말기고 경고하시다	신 31:9-18
14	토	증거가 될 노래	신 31:19-29
15	주일	미가 집의 제사장	삿 17:1-13
16	월	다른 불을 드린 사람들	레 10:1-7
17	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신 31:30-32:8
18	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신 32:9-14
19	목	은혜를 잊은 백성	신 32:15-27
20	금	하나님만이 심판자	신 32:28-38
21	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신 32:39-43
22	주일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의 확산	삿 18:1-31
23	월	하나님을 떠난 마음, 무너진 나라	왕하 17:7-18
24	화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라	신 32:44-52
25	수	르우벤과 유다를 향한 축복	신 33:1-7
26	목	사명 따라 주시는 복	신 33:8-17
27	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 33:18-29
28	토	사명을 마친 모세의 죽음	신 34:1-12
29	주일	[수난주일] 사사기에 나타난 죄와 은혜	삿 21:25 & 롬 5:18-21
30	월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	엡 2:1-10
31	화	[고난주간 특새 D-1] 하나되게 하는 십자가	고전 1:10-17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2

월요일

나에게 말기신 길

롬 14:1-10

1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Accept the one whose faith is weak, without quarreling over disputable matters.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One person's faith allows them to eat anything, but another, whose faith is weak, eats only vegetables.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The one who eats everything must not treat with contempt the one who does not, and the one who does not eat everything must not judge the one who does, for God has accepted them.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Who are you to judge someone else's servant? To their own master, servants stand or fall. And they will stand, for the Lord is able to make them stand.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 할지니라

One person considers one day more sacred than another; another considers every day alike. Each of them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their own mind.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Whoever regards one day as special does so to the Lord. Whoever eats meat does so to the Lord, for they give thanks to God; and whoever abstains does so to the Lord and gives thanks to God.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For none of us lives for ourselves alone, and none of us dies for ourselves alone.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For this very reason, Christ died and returned to life so that he might be the Lord of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You, then,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sister? Or why do you treat them with contempt?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03

화요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

신 28:36-46

36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The LORD will drive you and the king you set over you to a nation unknown to you or your ancestors. There you will worship other gods, gods of wood and stone.

37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You will become a thing of horror, a byword and an object of ridicule among all the peoples where the LORD will drive you.

38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You will sow much seed in the field but you will harvest little, because locusts will devour it.

39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You will plant vineyards and cultivate them but you will not drink the wine or gather the grapes, because worms will eat them.

40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You will have olive trees throughout your country but you will not use the oil, because the olives will drop off.

41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You will have sons and daughters but you will not keep them, because they will go into captivity.

42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Swarms of locusts will take over all your trees and the crops of your land.

43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The foreigners who reside among you will rise above you higher and higher, but you will sink lower and lower.

44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They will lend to you, but you will not lend to them. They will be the head, but you will be the tail.

45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All these curses will come on you. They will pursue you and overtake you until you are destroyed, because you did not obey the LORD your God and observe the commands and decrees he gave you.

46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They will be a sign and a wonder to you and your descendants forev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05

목요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신 29:1-9

1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terms of the covenant the LORD commanded Moses to make with the Israelites in Moab, in addition to the covenant he had made with them at Horeb.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Moses summoned all the Israelites and said to them: Your eyes have seen all that the LORD did in Egypt to Pharaoh, to all his officials and to all his land.

3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With your own eyes you saw those great trials, those signs and great wonders.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But to this day the LORD has not given you a mind that understands or eyes that see or ears that hear.

5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Yet the LORD says, "During the forty years that I led you through the wilderness,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nor did the sandals on your feet.

6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You ate no bread and drank no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I did this so that you might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7 너희가 이 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When you reached this place, Sihon king of Heshbon and Og king of Bashan came out to fight against us, but we defeated them.

8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We took their land and gave it as an inheritance to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9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Carefully follow the terms of this covenant, so that you may prosper in everything you do.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감추신 뜻과 드러난 말씀

신 29:22-29

22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Your children who follow you in later generations and foreigners who come from distant lands will see the calamities that have fallen on the land and the diseases with which the LORD has afflicted it.

23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The whole land will be a burning waste of salt and sulfur—nothing planted, nothing sprouting, no vegetation growing on it. It will be like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Admah and Zeboyim, which the LORD overthrew in fierce anger.

24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나 하면

All the nations will ask: "Why has the LORD done this to this land? Why this fierce, burning anger?"

25 그 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And the answer will be: "It is because this people abandoned the covenant of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the covenant he made with them when he brought them out of Egypt.

26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They went off and worshiped other gods and bowed down to them, gods they did not know, gods he had not given them.

27 이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Therefore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this land, so that he brought on it all the curses written in this book.

28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In furious anger and in great wrath the LORD uprooted them from their land and thrust them into another land, as it is now."

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but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and to our children forever, that we may follow all the words of this law.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자기를 비워 높아지신 이름

빌 2:5-11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니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9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nd every tongue acknowledge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두려워 말라, 여호와와가 앞서 가신다

신 31:1-8

1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Then Moses went out and spoke these words to all Israel:

2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백이십 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끄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I am now a hundred and twenty years old and I am no longer able to lead you. The LORD has said to me, 'You shall not cross the Jordan.'

3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cross over ahead of you. He will destroy these nations before you,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Joshua also will cross over ahead of you, as the LORD said.

4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And the LORD will do to them what he did to Sihon and Og, the kings of the Amorites, whom he destroyed along with their land.

5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The LORD will deliver them to you, and you must do to them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Then Moses summoned Joshua and said to him in the presence of all Israel,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must go with this peopl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their ancestors to give them, and you must divide it among them as their inheritance.

8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미가 집의 제사장

삿 17:1-13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Now a man named Micah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said to his mother, "The eleven hundred shekels of silver that were taken from you and about which I heard you utter a curse—I have that silver with me; I took it." Then his mother said, "The LORD bless you, my son!"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When he returned the eleven hundred shekels of silver to his mother, she said, "I solemnly consecrate my silver to the LORD for my son to make an image overlaid with silver. I will give it back to you."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So after he returned the silver to his mother, she took two hundred shekels of silver and gave them to a silversmith, who used them to make the idol. And it was put in Micah's house.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Now this man Micah had a shrine, and he made an ephod and some household gods and installed one of his sons as his priest.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A young Levite from Bethlehem in Judah, who had been living within the clan of Judah,

8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left that town in search of some other place to stay. On his way he came to Micah's house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Micah asked him, "Where are you from?" "I'm a Levite from Bethlehem in Judah," he said, "and I'm looking for a place to stay."

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Then Micah said to him, "Live with me and be my father and priest, and I'll give you ten shekels of silver a year, your clothes and your food."

11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So the Levite agreed to live with him, and the young man became like one of his sons to him.

12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Then Micah installed the Levite, and the young man became his priest and lived in his house.

13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And Micah said, "Now I know that the LORD will be good to me, since this Levite has become my priest."

.....

다른 불을 드린 사람들

레 10:1-7

-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Aaron's sons Nadab and Abihu took their censers, put fire in them and added incense; and they offered unauthorized fire before the LORD, contrary to his command.

-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So fire came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consumed them, and they died before the LORD.

- 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Moses then said to Aaron, "This is what the LORD spoke of when he said: 'Among those who approach me I will be proved holy;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I will be honored.'" Aaron remained silent.

- 4 모세가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Moses summoned Mishael and Elzaphan, sons of Aaron's uncle Uzziel, and said to them, "Come here; carry your cousins outside the camp, away from the front of the sanctuary."

- 5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So they came and carried them, still in their tunics, outside the camp, as Moses ordered.

-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Then Moses said to Aaron and his sons Eleazar and Ithamar, "Do not let your hair become unkempt and do not tear your clothes, or you will die and the LORD will be angry with the whole community. But your relatives, all the Israelites, may mourn for those the LORD has destroyed by fire.

- 7 여호와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는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Do not leave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or you will die, because the LORD's anointing oil is on you." So they did as Moses sai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신 31:30-32:8

30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And Moses recited the words of this song from beginning to end in the hearing of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Listen, you heavens, and I will speak; hear, you earth, the words of my mouth.

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Let my teaching fall like rain and my words descend like dew, like showers on new grass, like abundant rain on tender plants.

3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I will proclaim the name of the LORD. Oh, praise the greatness of our God!

4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He is the Rock, his works are perfect, and all his ways are just. A faithful God who does no wrong, upright and just is he.

5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뺨뒤틀어진 세대로다

They are corrupt and not his children; to their shame they are a warped and crooked generation.

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Is this the way you repay the LORD, you foolish and unwise people? Is he not your Father, your Creator, who made you and formed you?

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Remember the days of old; consider the generations long past. Ask your father and he will tell you, your elders, and they will explain to you.

8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When the Most High gave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when he divided all mankind, he set up boundaries for the peopl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ons of Isr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눈동자 같이 지키는 하나님

신 32:9-14

9 여호와와 그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을 이룬다

For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Jacob his allotted inheritance.

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In a desert land he found him, in a barren and howling waste. He shielded him and cared for him; he guarded him as the apple of his eye,

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like an eagle that stirs up its nest and hovers over its young, that spreads its wings to catch them and carries them aloft.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The LORD alone led him; no foreign god was with him.

13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He made him ride on the heights of the land and fed him with the fruit of the fields. He nourished him with honey from the rock, and with oil from the flinty crag,

14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with curds and milk from herd and flock and with fattened lambs and goats, with choice rams of Bashan and the finest kernels of wheat. You drank the foaming blood of the grap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하나님만이 심판자

신 32:28-38

28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They are a nation without sense, there is no discernment in them.

29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If only they were wise and would understand this and discern what their end will be!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How could one man chase a thousand, or two put ten thousand to flight, unless their Rock had sold them, unless the LORD had given them up?

31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For their rock is not like our Rock, as even our enemies concede.

32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Their vine comes from the vine of Sodom and from the fields of Gomorrah. Their grapes are filled with poison, and their clusters with bitterness.

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Their wine is the venom of serpents, the deadly poison of cobras.

34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Have I not kept this in reserve and sealed it in my vaults?"

35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In due time their foot will slip; their day of disaster is near and their doom rushes upon them."

36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The LORD will vindicate his people and relent concerning his servants when he sees their strength is gone and no one is left, slave or free.

37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He will say: "Now where are their gods, the rock they took refuge in,

38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the gods who ate the fat of their sacrifices and drank the wine of their drink offerings? Let them rise up to help you! Let them give you shelt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의 확산

삿 18:1-31

- 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because they had not yet come into an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 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So the Danites sent five of their leading men from Zorah and Eshtaol to spy out the land and explore it. These men represented all the Danites. They told them, "Go, explore the land." So they entered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came to the house of Micah, where they spent the night.

- 3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When they were near Micah's house,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young Levite; so they turned in there and asked him, "Who brought you here? What are you doing in this place? Why are you here?"

- 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He told them what Micah had done for him, and said, "He has hired me and I am his priest."

-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Then they said to him, "Please inquire of God to learn whether our journey will be successful."

- 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The priest answered them, "Go in peace. Your journey has the LORD's approval."

- 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So the five men left and came to Laish, where they saw that the people were living in safety, like the Sidonians, at peace and secure. And since their land lacked nothing, they were prosperous. Also, they lived a long way from the Sidonians and had no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 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When they returned to Zorah and Eshtaol, their fellow Danites asked them, "How did you find things?"

- 9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They answered, "Come on, let's attack them! We have seen the land, and it is very good. Aren't you going to do something? Don't hesitate to go there and take it over."

10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When you get there, you will find an unsuspecting people and a spacious land that God has put into your hands, a land that lacks nothing whatever."

11 단 지파의 가족 중 육백 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Then six hundred men of the Danites, armed for battle, set out from Zorah and Eshtaol.

12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트여아림에 진 치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 곳은 기랴트여아림 뒤에 있더라

On their way they set up camp near Kiriath Jearim in Judah. This is why the place west of Kiriath Jearim is called Mahaneh Dan to this day.

13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From there they went on to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came to Micah's house.

14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Then the five men who had spied out the land of Laish said to their fellow Danites, "Do you know that one of these houses has an ephod, some household gods and an image overlaid with silver? Now you know what to do."

15 다섯 사람이 그 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So they turned in there and went to the house of the young Levite at Micah's place and greeted him.

16 단 자손 육백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The six hundred Danites, armed for battle, stood at the entrance of the gate.

17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The five men who had spied out the land went inside and took the idol, the ephod and the household gods while the priest and the six hundred armed men stood at the entrance of the gate.

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When the five men went into Micah's house and took the idol, the ephod and the household gods, the priest said to them, "What are you doing?"

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They answered him, "Be quiet! Don't say a word. Come with us, and be our father and priest. Isn't it better that you serve a tribe and clan in Israel as priest rather than just one man's household?"

20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The priest was very pleased. He took the ephod, the household gods and the idol and went along with the people.

21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Putting their little children, their livestock and their possessions in front of them, they turned away and left.

22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When they had gone some distance from Micah's house, the men who lived near Micah were called together and overtook the Danites.

23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As they shouted after them, the Danites turned and said to Micah, "What's the matter with you that you called out your men to fight?"

24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He replied, "You took the gods I made, and my priest, and went away. What else do I have? How can you ask, 'What's the matter with you?'"

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The Danites answered, "Don't argue with us, or some of the men may get angry and attack you, and you and your family will lose your lives."

26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So the Danites went their way, and Micah, seeing that they were too strong for him, turned around and went back home.

27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Then they took what Micah had made, and his priest, and went on to Laish, against a people at peace and secure. They attacked them with the sword and burned down their city.

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홀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There was no one to rescue them because they lived a long way from Sidon and had no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The city was in a valley near Beth Rehob. The Danites rebuilt the city and settled there.

29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They named it Dan after their ancestor Dan, who was born to Israel—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aish.

30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There the Danites set up for themselves the idol, and Jonathan son of Gershom, the son of Moses, and his sons were priests for the tribe of Dan until the time of the captivity of the land.

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They continued to use the idol Micah had made, all the time the house of God was in Shiloh.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라

신 32:44-52

44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Moses came with Joshua son of Nun and spoke all the words of this song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45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When Moses finished reciting all these words to all Israel,

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he said to them, "Take to heart all the words I have solemnly declared to you this day, so that you may command your children to obey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is law.

47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They are not just idle words for you—they are your life. By them you will live long in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48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On that same day the LORD told Moses,

49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Go up into the Abarim Range to Mount Nebo in Moab, across from Jericho, and view Canaan, the land I am giving the Israelites as their own possession.

50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There on the mountain that you have climbed you will die and be gathered to your people, just as your brother Aaron died on Mount Hor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51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This is because both of you broke faith with me in the presence of the Israelites at the waters of Meribah Kadesh in the Desert of Zin and because you did not uphold my holiness among the Israelites.

52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you will see the land only from a distance; you will not enter the land I am giving to the people of Isr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26

목요일

사명 따라 주시는 복

신 33:8-17

8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돌땀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 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10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2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13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14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15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 땅의 선물과 거기 총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7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하나되게 하는 십자가

고전 1:10-17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I appeal to you,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with one another in what you say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My brothers and sisters, some from Chloe's household have informed me that there are quarrels among you.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What I mean is this: One of you says, "I follow Paul"; another, "I follow Apollos"; another, "I follow Cephas"; still another, "I follow Christ."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Is Christ divided? Was Paul crucified for you? Were you baptized in the name of Paul?

14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I thank God that I did not baptize any of you except Crispus and Gaius,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so no one can say that you were baptized in my name.

16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Yes, I also baptized the household of Stephanas; beyond that, I don't remember if I baptized anyone else.)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not with wisdom and eloquence,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2026.
03

순예배 가이드

01

1. 3월 셋째 주 (3/15-21)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의 확산 (삿 18:1-31)

2. 3월 넷째 주 (3/22-28)

[수난주일] 사사기에 나타난 죄와 은혜 (삿 21:25 & 롬 5:18-21)

3. 4월 첫째 주 (3/29-4/4)

[부활주일]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갈 2:20 & 롬 6:6-11)

03

[순예배 가이드] 3월 셋째 주 (3/15-21)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의 확산

사사기 18:1-31

지난주 본문 요약 | 미가 집의 제사장 (삿 17:1-13)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훗친 은을 돌려주어,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다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3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9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10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11 단 지파의 가족 중 육백 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12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여아림에 진 치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 곳은 기랴여아림 뒤에 있더라 13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p>* 음성을 알아듣고(3절): '말씨' 또는 '억양'이라는 뜻으로,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다른 억양으로 식별하여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p> <p>* 기랴여아림(12절): '숲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기브온 동맹국의 성읍 중 하나이며, 삼손이 처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장소이기도 합니다.</p>

관찰/해석

관찰/해석

- 14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 15 다섯 사람이 그 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 16 단 자손 육백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 17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 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 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 20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 21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 22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 **에봇과 드라빔(14절):** 에봇은 이스라엘의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제복이며, 드라빔은 점치는데 사용된 우상으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관찰/해석

- 23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 24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 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 26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 27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 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홀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 29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 30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 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 **베드르홀(28절):** '르홀의 집'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열두 정탐꾼이 탐지한 가나안 북부 성읍으로, 요단강 상류 단지파가 거주했던 라이스 부근의 평원입니다.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3.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8: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

WORSHIP

[순예배 가이드] 3월 넷째 주 (3/22-28)

04

사사기에 나타난 죄와 은혜

사사기 21:25 & 롬 5:18-21

지난주 본문 요약 |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의 확산 (삿 18:1-31)

기업을 온전히 얻지 못한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면서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새긴 신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삿 21:25]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롬 5:18-21]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Consequently, just as one trespass resulted in condemnation for all people, so also one righteous act resulted in justification and life for all people.

관찰/해석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For just as through the dis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The law was brought in so that the trespass might increase.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so that, just as sin reigned in death, so al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 소견(25절): 사물을 보고 가지는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뜻으로, 주로 '자기 의견' 곧 '욕심'이란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우리의 진정한 왕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2.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하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01

[순예배 가이드] 4월 첫째 주 (3/29-4/4)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20 & 로마서 6:6-11

지난주 본문 요약 | 사사기에 나타난 죄와 은혜 (삿 21:25 & 룰 5:18-21)

사사 시대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 노릇하는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갈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롬 6:6-11]

6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관찰/해석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 옛 사람(6절):** 성경에서 자주 쓰인 관용어로, ①문자 그대로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고인을 포함)이나 조상들을 의미하거나, ②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하기 이전의 인생을 특징짓는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거기에 기초한 악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선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손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3.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26.
02

CES 멘토스쿨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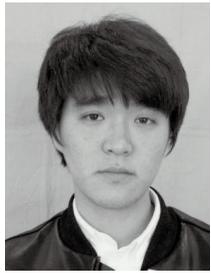
02

1. 김제완 성도 (E강남공동체)
2. 심언정 성도 (C강남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김제완 성도 (E강남공동체)



청년의 시절 CES에 참여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6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멘티로 참여하며 멘토님과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과 신앙의 고백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을 따라 집에 보관해 두었던 CES 교재를 다시 찾아, 그때 기록해 두었던 기도 제목과 고백들을 하나씩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청년의 때에 가졌던 간절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교재를 다시 읽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드렸던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고,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절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CES 멘토스쿨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멘토스쿨을 통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큰 은혜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었지만, 삶의 단계가 달라진 지금 다시 배우니 이 전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신앙의 기

초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이 감정이나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리 위에 바로 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의 이후 조원분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시간과 다른 조원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앞으로 만나게 될 멘티와도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멘토스쿨이 지식의 전달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멘토스쿨을 수료하게 되면 저 역시 누군가의 멘토로서 한 영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앞으로 받게 될 은혜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주일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진정한 멘토이자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앞서 이끄는 사람이 되기보다, 한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멘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멘토스쿨을 통해 받은 배움과 은혜가 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곳곳에서 실천되어, 다음 세대를 주 안에서 세워 가는 작은 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탁월함이 아닌 순종으로 만드는 열매

심언정 성도 (C강남공동체)



2017년 멘티 과정을 수료한 이후, 삶의 분주함이라는 이유로 부르심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꼭 지원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던 중, 3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무리하며 몸에 이상이 찾아왔고 결국 작년 말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수술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17기 멘토스쿨 모집 공고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기회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던 저는, 정작 마음을 먹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수술 후 개강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몸 상태로 신청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제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고, 판화를 새기듯 하루에 한두 줄씩 겨우 채워 마감 날 제출했습니다. "샬롬~ CES 멘토스쿨 17기 입학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떨리는 이 문자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부담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멘토스쿨 과정을 지나며 저는 하나님의 성품

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배움은 지식의 풍성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매 과목마다 이어지는 조별 나눔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나누며, 발표의 부담 앞에서 머뭇거리는 조원들의 눈빛마저도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의 신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마음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응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멘토스쿨을 지나며 저는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멘티를 매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적합한 멘티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만남 자체가 서로를 성장으로 이끄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큼니다. 동시에 멘티가 멘토를 닮아간다는 말 앞에서, 먼저 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영적 부담 또한 함께 커집니다.

그러나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가는 통로로, 즉각적인 순종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과 열매를 기대하는 멘토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26.
02

수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1. 이상명 성도 (S강남공동체)
2. 이수연F 청년 (청년2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상명 성도 (S강남공동체)



이번에 선택한 커피 브레이크 코스는 최근 누리게 된 호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은 일상에 쫓겨 힘들고 우울하고 좌절이 찾아오

는 허기진 일상에 그 허기를 달래려 욕여넣는 혼자 먹는 즉석라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믿음의 자매들과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일을 나눌 때 마음이 광활해지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의 안도했을 마음과 지금도 그런 것들로 인해 놀려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걱정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커피 브레이크에는 커피는 없고 이런 나눔과 나눔을 간식에 녹여내기 위해 깊이 고민한 진귀한 간식과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의 자매라면 또 형제들이라면 이런 브레이크 좋아하게 될 것이라 믿게 됩니다.

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아이를 살리신 주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장면, 요한 사도의 죽음과 제자들의 질문,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치적인 힘의 행사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 적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모습을 저는 항상 사랑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이야기를 믿음의 자매들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주님의 모습을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또 같이 느끼면서 해석과 믿음이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는 커피는 없고 이런 나눔과 나눔을 간식에 녹여내기 위해 깊이 고민한 진귀한 간식과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의 자매라면 또 형제들이라면 이런 브레이크 좋아하게 될 것이라 믿게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관계가 되는 은혜의 자리

이수연 F 청년 (청년2부)



커피브레이크에 처음 참여하기 전에는 솔직히 마음 한편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는 것이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고, 평일 낮시간의 모임이다 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한 커피브레이크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고 훈련 받으신 인도자님과 부인도자님의 가이드를 따라 말씀을 나누다 보니,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단어, 한 구절마다 질문하며 천천히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은 점점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커피브레이크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은 쉽게 잊히지 않았고, 오히려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현듯 떠올라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며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매일 각 멤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 큰 은혜였습니다. 아직 중보자의 자리에서 오래 서 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자매님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과 상처를 나눠 주실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져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교회에 등록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가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커피브레이크는 저에게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관계가 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다음 커피브레이크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2026.
02

SBSB 간증

04

1. 최광수A 성도 (우면공동체)
2. 박은경E 성도 (C강남공동체)
3. 이환술 청년 (청년2부)
4. 박예은 청년 (청년1부)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

최광수A 성도 (우면공동체)



저는 5년 만에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반가움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도 되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조용히 돌보고 계셨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제 마음은 벽차올랐습니다.

주보를 통해 'SBSB' 성경공부 과정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 또한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신앙을 다시 깨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의 강의는 큰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쉽고도 깊이 있게 풀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말씀을 가까이하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멀어졌고, 그 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 제 안에 다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결단이 제 안에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SBSB는 제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시간, SBSB

박은경E 성도 (C강남공동체)



다사다난했던 2025년 끝자락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시부모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뵈는 것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이곳에서 더 이상 뵈 수 없다는 슬픔이 물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힘의 공급이 절실했을 때, 저의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신 SBSB 수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 시간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왕초보 성경공부' 과정이라 제가 먼저 들어보고 초신자나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순원들에게 소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이 수업을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경의 왕초보가 아니더라도 전 교인이 꼭 들어야 할, CES와 '성경 속으로'를 이전에 이수해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된 도표와 어디에도 없는 맞춤형 지도, 성지순례 때마다 담아오신 귀한 사진들, 그리고 영상과 실물 자료 등 풍성한 자료로 입체적인 강의

를 해 주셨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큰 우박으로 멸망했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영상도 보여 주셔서 자녀들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하며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한 주간 성경을 읽고 교재의 빈칸을 채우며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고, 저녁마다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며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에 매여 있는 풍성한 방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인 '성경 속 라이벌 시리즈'도 다시 들으며 온종일 말씀 속에서 살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SBSB 수업의 매 시간마다 성경을 끌어안고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가까이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어느새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경을 펴 놓고 읽고 또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SBSB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강정현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이환솔 청년 (청년2부)



저에게 SBSB(왕초보 성경공부)는 이미 여러 양육 과정을 수강한 이후에 서게 된 자리였기에, 단순한 '기초 과정' 그 이상으로 제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라면 SBSB를 시작으로 '성경속으로', 그리고 'CES'를 수강하는 과정이었지만 저는 이 과정을 반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된 순서'는 오히려 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속으로"를 통해 저는 성경을 단편적인 이야기의 모음이 아닌,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말씀보다 상황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에 기대어 살아왔던 저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ES' 양육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이 지식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서 삶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다시 듣게 된 SBSB는 마치 신앙의 출발선으로 저를 다시 데려다 놓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정현 사모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신 SBSB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다양한 교보재와 비유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고, 말씀 하나하나가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삶의 간증은 성경 말씀이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느끼게 해 주었고, 그로 인해 말씀을 향한 제 마음도 한층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의 큰 흐름을 알고 신앙의 방향성을 배운 이후에 다시 접한 SBSB였기에, 이 시간은 '새로운 배움'이라기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홍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던 "벤엘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권면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놓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질문,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으며,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SBSB를 통해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SBSB는 저에게 신앙의 시작을 다시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서가 달랐기에 더 깊이 보게 하였고, 돌아온 길이였기에 더 소중하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초 위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 성경

박예은 청년 (청년1부)



SBSB는 3주 동안의 짧은 양육 과정이었지만 그 임팩트는 엄청납니다. 매주 필수준비물이 '종이 성경책'이었는데, 휴대폰 성경앱이 너무나 익숙해진 탓에 오랜만에 만져 보

는 종이 성경책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하다 보니, 지금은 아주 빠르게 말씀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직접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 발견해 보고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며,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 주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SBSB가 유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성경에 더 큰 흥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강사이신 강정현 사모님께서 그리스, 이스라엘, 몽골 등 직접 선교를 다녀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유물과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고, 덕분에 성경 속 내용이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3차원 입체 지도를 통해 보고 만져보는 시간에는 마치 내가 그 시대와 장소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억도 오래 남았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주요 사건을 시간대 순으로 나

열한 차트로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 성경 내용의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고, 각 성경의 핵심 사건과 쓰인 시기, 주요 선지자들이 활동한 배경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깊이 울림이 있던 순간은 매주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성경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한 홍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의 내용처럼 성경은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재미있는 책이고, 계속해서 읽고 싶은 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도 같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를 모두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을 무의식중에 믿고 탑승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SBSB는 당장 성경을 펼쳐 읽어 보고 싶게 만드는 양육 과정이라 확신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새롭게 더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
02

뉴젠 초등부/중등부/고등부 수련회 간증

05

1. 박주희F 학생 (뉴젠 초등부)
2. 권세울 학생 (뉴젠 초등부)
3. 박서현A 학생 (뉴젠 초등부)
4. 이해수A 학생 (뉴젠 중등부)
5. 최소을 학생 (뉴젠 중등부)
6. 김예원 학생 (뉴젠 고등부)
7. 강하음 학생 (뉴젠 고등부)





박주희F 학생 (뉴젠 초등부)

처음 S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친구들과 놀 마음에 들떠있었지만, 전도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코너 학습을 돌 때 조 친구들과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각 코너 학습을 담당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릴 때는 신기하게 친구와 떠들고 싶은 마음보다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특별히 기도회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상처받았던 것을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말과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또 신기하게 기도를 하기 전에는 추웠던 S하우스가 기도를 하고 나니 갑자기 후끈후끈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련회가 하루였지만 그래도 하루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저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올해는 하나님을 꼭 더 가까이 만나 보고 싶습니다!



권세울 학생 (뉴젠 초등부)

저는 2026년도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1박 2일이 아니라 아쉽기도 하고 하루다보니 별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 보니 정말 재미있고 신났습니다.

점심도 맛있었고 코너 학습도 재미있었지만, 생각해 보니 예배 때 한 기도회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셨고, 그 덕분에 더욱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코너가 생각이나고 즐거웠던 이번 성경학교! 다음에 있을 여름성경학교에도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서현A 학생 (뉴젠 초등부)

이번 성경학교는 무박이어서 좀 아쉬웠지만, 무박이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들과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한 첫 겨울성경학교는 재미있고, 신나는 찬양 시간과 흥미로운 설교 시간, 은혜로웠던 기도회 시간 모든 시간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참여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였던 기도회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나를 꼭 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여름성경학교가 더욱 기대됩니다!



2026.02.07 |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이혜수A 학생 (뉴젠 중등부)

2박 3일 동안 겨울수련회를 지내며 다양한 활동과 예배, 소그룹을 통해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 때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앞서 갈 것이다, 너희를 붙들겠다,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이 수련회에 오기 전 나의 삶과 겹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매일 해야 하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빼먹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뜨거운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 날의 코너 학습과 목사님의 주제 강의를 인상 깊었습니다. 코너 학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고, [기독교 세계관] 주제 강의를 통해 그동안 헛갈렸던 종교들과 문화들이 정리되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의 본질이 뱀의 네 가지 거짓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기억에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해하고 전도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예배를 통해 긴 시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내 입을 직접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목이 아프기도 했지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경험과 은혜를 앞으로 살아갈 현실 속에서도 기억하고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련회를 기획하신 선생님들과 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MARCH *
Toward THE
* PROMISED LAND ***

2026.01.23-25 | 중등부 겨울수련회



최소을 학생 (뉴젠 중등부)

이번 수련회는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이번 주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영적 방향뿐만 아니라 저 또한 제가 속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만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와 찬양 시간은 그야말로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뻐하며 뭉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나 자신만을 위한 좁은 기도를 넘어 교회와 선생님들, 친구들과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 부렸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의 그런 연약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안아 주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랑 앞에서 과거의 불평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을 감사로 채워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안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김예원 학생 (뉴젠 고등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로운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따라 나온 거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던

오빠의 방향으로 오빠와 엄마의 갈등이 심해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되었고 교회에 지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엄마와 오빠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때 이후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등부에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다른 일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교회 몇 번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실하게 믿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의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오만한 생각이었던 걸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고등부 첫 수련회가 그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수련회 뿐 아니라 고등부 첫 예배부터 왜인지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저도 방향을 하는 건지, 광야 속을 걷고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삶 가운데

고등부라는 존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버팀이 되는구나, 놀라운 정도로 저는 고등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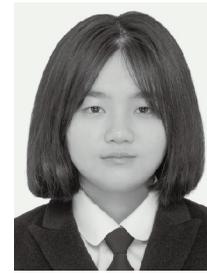
선배님들이 고등부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바로 이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를 모두 저녁 집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물이 흘러나오고, 둘째 날에는 기도가 술술 흘러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뛰고, 다 같이 춤추며 찬양하고, 다 같이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기도를 더욱 오래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부의 모든 선배들처럼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두 사역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았고, 아직 사역팀으로 섬길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부 첫날 수련회를 보낸 후, 사역팀 신청서와 제자훈련 신청서를 받자마자 첫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고민 없이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고등부에서 정말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하음 학생 (뉴젠 고등부)



저는 작년 여름수련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며 의심하

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야 저는 남들에 비해 뛰어난 점도 없었고, 저도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나 같은 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바뀐 진로로 인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저번 수련회 못지않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는 스케줄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 처음으로 제 의지로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은 제게 사랑도 주셨습니다. 평온하고 따스한 느낌,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느낌이 들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오만함과 자존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아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번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
